

# “제주선수들 힘내세요”... 응원 물결 넘실

## 시즌 첫 승 임진희 바통 이어받는다

현세린·고지우·고지원 E1 채리티 오픈 출격

###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전 기원 격려금 잇따라 도체육회 임원 4600만원 기탁... 기부금제도 활성화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전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이틀 후 개막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송승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울산광역시 일원 등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도체육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격려금 답지가 이어지고 있다.

송승천 회장이 1000만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 신진성 수석 부회장과 고정신(도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준, 오선홍, 오영철(서귀포시

축구협회 회장) 부회장, 강경훈 사무처장이 각 300만원씩의 격려금을 도체육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또 강동훈(로그인엔트카 대표), 강민철, 고희철(제주시축구협회 사무차장), 김두훈(선우수산 대표), 김창현(제주시수영연맹 회장), 박순덕(도레슬링협회부회장), 백상훈(대한전선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안은주(해와대표), 오동진((사)제주특별자치도전북협회장), 유철수(제주관광대 겸임교수), 장원규(도불링협회 부회장), 장은실(삼성여고 체육교사), 정한수(도바둑협회 회장), 좌운선(현대건설(주) 대표), 허창범(서귀포시공도협회 회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52nd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장, 현중희(제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이사가 각 100만원씩 기탁하면서 격려금은 총 4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618명(본부임원 78, 경기임원, 93, 선수 447명)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임원들이 함께 대회를 찾아 현장

응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사전 경기에서 선수단은 태권도에서 금 1, 동 2, 펜싱에서도 동메달 2개 획득 등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민선2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함은 물론 체육회 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주체육진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육발전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해 나갈 방침이다.

송승천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임원들과 한마음으로 격려금을 모았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며 선전과 무사귀환을 당부했다. **조상윤기자**

이번엔 현세린(대방건설)과 고지우·지원(이상 삼천리) 자매가 나선다. 시즌 첫 승을 신고한 임진희(안강건설)에 이어 제주출신 골퍼들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향해 출격한다.

그 무대는 올 시즌 열 번째 대회인 ‘제11회 E1 채리티 오픈’(총상금 9억원)이다. 26일부터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성문안 컨트리클럽(파72/6522야드)에서 열린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다승도 허락하지 않았던 매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 대회는 올해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우승컵을 향한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친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혜진, 유소연과 올해 KPGA 투어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 박지영을 비롯 최근 2년 연속 상금왕 박민지, 디펜딩 챔피언 정윤지 등이 출전한다.

앞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지영, 이정민, 이에원, 이주미, 최은우, 이다연, 박보검, 임진희, 성유진

가운데 이다연, 임진희, 성유진을 제외한 6명이 시즌 2승 고지 선전에 도전한다.

현세린과 고지우, 고지원 등 제주출신 골퍼들도 다시 한번 정상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14일 제주출신 ‘월글’ 임성재와 같은 날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동갑내기 동반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쓴 임진희는 이번 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현세린은 시즌 개막전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9위를 기록한 이후 단 한 차례도 TOP 10에 진입하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다. 고지우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3에서 2위를 차지한 뒤 중화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생 지원 역시 상위권 도약에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통해 상위권 도약과 함께 내심 정상에 올라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U-20월드컵 16강 급행열차 타자”

김은중호 26일 온두라스와 2차전



더블 플레이는 이렇게... 24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 덴버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마이애미 마린스의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존 버티가 로키스의 랜들 그리츠크를 포아웃시킨 뒤 1루로 송구하고 있다.

‘아게인 이승원! 아게인 2019!’ ‘난적’ 프랑스를 격파한 김은중호가 두 번째 상대인 온두라스를 맞아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 조기 확정’에 도전한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26일 오전 6시(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온두라스와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1차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힌 프랑스(승점 0·골 득실 -1)를 2-1로 꺾고 1승(승점 3·골 득실 +1)을 기록, 역시 온두라스(승점 0·골 득실 -1)를 2-1로 물리친 감비아(승점 3·골 득실 +1)와 F조 선두 자리를 경쟁하고 있다.

최상의 ‘2차전 시나리오’는 한국이 온두라스를 꺾고, 감比亚가 프랑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최소 2위 자리를 확보, 감비아와의 3차전 결과에 상관 없이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

한다. 더불어 2승을 확보하면 조 3위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3위 6개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에 주어지는 ‘16강 와일드카드 티켓’을 품을 수 있다.

2019년 대회 준우승 신화의 재현에 도전하는 김은중호는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골치 아픈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두라스와 2차전 승리가 필수적이다.

김은중호는 온두라스와 2차전에서도 프랑스전 1골 1도움에 빛나는 이승원을 비롯해 기막힌 헤더를 선보인 이영준의 골 감각에 기대를 건다.

온두라스는 U-20 월드컵에서 통산 8차례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한국은 온두라스와의 U-20 대표팀과 역대 전적에서 2전승(2005년 2-1 승, 2017년 3-2 승)으로 앞서 있다. **연합뉴스**



## 제주도민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송승천)는 23일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 제주시 및 서귀포시청과 교육지원청,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를 개최하고, 운영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사진

이번 평가회는 제57회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현장의견수렴과 개선 방향 모색 등 차기 대회 성공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개선 요청사항은 7개 부문

총 59건의 개선의견을 수합해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 평가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차기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도민 화합을 물론 단순 스포츠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예술, 스포츠 행사를 융합한 종합문화축제로 치러졌으며, 제주도립예술단과 도립무용단의 경기공연과 메타버스 시연 등 스포츠와 콘서트를 결합한 스포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도민체육대회 개최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상윤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트크스 황금연못(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인 아침 M&W 1부 8:05 해 불만인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굿미야 굿미야(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비밀의 여자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하늘의 인연(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좋아 스페셜 11:1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45 크리켓킹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로이집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행이 보인다	8:00 당동댕 유치원 9:20 다류형과 길 위의 인생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3:00 EBS 평생학교 16:00 영아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7:40 골키퍼의 처음 수학 18:10 웅강한 소망자 레이 19:20 고행이 보인다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극선 별별다방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30 반과 후 초능력 15:00 상상꾸러기 꾸다 2 15:15 메탈카드 15:30 매직퀀트 대모험 15:45 프라운 원정대 16:00 사시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5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4:20 스튜디오 K(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15:30 TV 유치원 16:00 누구가가 잘하나 17:00 시크리쥬 베스트프렌드 2 17:15 내 비밀친구 협지(재) 17:30 농천 예능 따라잡기 17:50 통영뉴스를 더	12:00 12 MBC 뉴스 12:25 조선변호사(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실화탐사대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40 남민터뷰 김사부 3(재) 14:00 전국 TOP10 가요쇼(재) 15:00 최강 1교시 16: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TV 동물농장(재)	7:00 김탁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성훈입니다 12:00 CBS낚총합뉴스 14:05 송정미의 축복송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 20:30 굿미야 굿미야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공영방송 50주년 특별기획 정바나니 접사들 22:50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여자 20:30 홍강동진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공감토크 소통의 고수 22:00 반과 후 설렘 시즌2 소년판타지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뉴스 21:00 우린 같이 산다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뉴스 21:00 우린 같이 산다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토리 1055 14: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5일**

김종상 지단(星)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택교수(010-5233-6136)

**36년** 과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밝은 내일을 꿈꾸자. 48년 문서 관련된 일은 손실이 예상되니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라. 60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72년 미혼자는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분주. 자녀에게 신경을 쓴다. 84년 변동보다는 한번 마음 편한 일은 끝까지 추진하는 게 좋다.

**42년** 조급함을 갖지 마라. 성급함이 후회를 낳는다. 사업관련 금전 필요. 54년 자식의 보증문제로 고민이 있고, 분주하다. 68년 이성으로 인한 망신수 또는 구실이 우려된다. 성회중 조정. 78년 모임이나 친목이 길한 날. 결혼성사, 투자, 이성교제 청신호. 90년 주변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부르기 인정을 한다.

**37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인행이나 주의. 49년 진위를 놓고 힘들어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하라. 61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무리는 금물이고 욕심을 내지 말라. 7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통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85년 이성교제가 진행되나 또 다른 이성으로 고민한다.

**43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감력과 노하우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55년 조대를 받거나 내 역할을 때려 상대가 원한다. 67년 사소한 일에 참견이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79년 구매충동 또는 호기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91년 약속이나 모임에 참여하니 읊주는 자중.

**38년** 사색에서 한 말이 되돌아오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시기가 생각된다. 62년 숨이 트이는 형국. 분주히 활동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74년 재물욕이 강해 망신수가 우려된다. 정도를 지켜라. 86년 취직 또는 문서상 기쁜 소식이 있거나 이성교제.

**44년** 좋은 일속에 흥이 도사리니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56년 내 주장은 약하게. 상대의 주장을 많이 경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68년 자존심이나 자만은 집에 두고 일터로 향하라. 80년 마음껏 활동할 기회가 의욕이 필요하다. 친목모임 약속이 진행된다. 92년 이별에 상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39년** 갈망하는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51년 변동이 불리하고 실매가 따르니 현상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63년 자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다. 자녀 몸매 잘라 상 등이 우려. 75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7년 취직, 직장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 문제로 바쁘다.

**45년** 배짱과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이 좋다. 57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이 불린다. 자녀 몸매 잘라 상 등이 우려. 75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7년 취직, 직장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 문제로 바쁘다.

**40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투는다는 배려할 것. 52년 일이 있으면 기쁘고, 없는 자는 돈 문제로 걱정이 생긴다. 6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전화할 것. 76년 아이에게 걱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신도 되는 시기이다. 88년 잘난 척하면 선배 또는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오래도록 간다.

**46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58년 투자는 매도도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 서변화 시 신중하라. 70년 활동량이 늘어나고 분주하며 이익은 서서히 나타난다. 82년 어떤 일을 행하든 전 경 거망등을 금물이나 뒷사람에게 공손하라. 94년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기니 다시 외출하게 된다.

**41년** 업무에 인정받고 찾는 이가 많아진다. 53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상심이 오간다.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 65년 도난이나 손실수 조정, 외출시 문닫기 철저. 77년 계산상 착오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계가 발생하니 기회 포착이 포인트. 89년 돈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성문제가 발생. 인행 주의.

**47년** 직장에 문제 발생.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리 정돈은 기본. 59년 돈의 쓸쓸이가 커지고 허황된 재물욕에 갈등을 한다. 71년 강한 호기심으로 변화를 가져보려 하나 지금은 차분히 현실에 충실하라. 83년 이성간에 교제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온다. 95년 큰소리가 오가면 불리하니 여유가 필요하다.